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7. 26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美 재무부, 유대인 공격 헤즈볼라 지도자 제재
 - 7.19 VOA는 재무부가 아르헨티나 유대인 센터를 폭파('94년)한 혐의로 헤즈볼라 지도자 「살만 라우프 살만」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고 보도
 - * 美 국무부는 위치정보 제공자에게 현상금 700만 달러(약 82억원) 지급 보증
- 美 의회, 9.11 테러 구조요원 지원 연장법안 가결
 - 7.23 AP통신은 美 의회가 9.11 테러당시 숨진 구조요원의 유족과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요원들에게 '92년까지 재정적 지원을 연장하는 법안을 압도적 지지(찬성 97, 반대 2)로 통과시켰다고 보도

유 럽

- 네덜란드, 테러 선전·선동 혐의 20대 남성 체포
 - 7.19 경찰당국은 지난 17일 남동부의 마스트리흐트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'지하드'(이슬람성전)를 위한 선전·선동 활동을 벌여온 27세 남성을 테러 관련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
- 유럽항공사, 테러위협 증가로 카이로行 운항 중단
 - 7.20 英항공과 獨루프트한자 항공은 이집트內 테러위협 증가를 이유로 7.20부터 카이로行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
 - * 英외무부는 7.19 이집트 시나이반도·나일강 서부지역 방문 자제 여행주의보 발령
- 터키 외교장관, 시리아 안전지대 未구축시 군사작전 시사
 - 7.23 현지 언론은 터키 외교장관이 “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안전지대가 구축되지 않고 쿠르드노동자당(PKK)의 위협이 계속될 경우에 국경을 넘어 군사작전을 개시할 것”이라고 언급했다고 보도

중 동

- ISIS 조직원 천여명 이라크로 대거 입국, 테러에 가담
 - 7.22 WP는 최근 8개월간 시리아에서 이라크로 귀국한 ISIS 조직원 1,000여명이 테러를 자행하고 있으며, 이라크군이 새로운 군사작전을 개시했으나 조직원 소탕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
- 이스라엘, 시리아의 전략적 요충지 미사일 공습(연합뉴스)
 - 7.24 AFP통신은 이스라엘군이 24일 새벽에 시리아 정부군과 그 동맹세력들의 기지가 있는 골란고원 인근 ‘탈알하라*’지역을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보도
 - * 시리아 정부군의 방공포대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레이더 등이 배치된 전략적 요충지

아 · 태평양

- 홍콩, 송환법 반대시위 앞두고 폭발물 제조 남성 검거
 - 7.20 경찰은 「범죄인 송환법」 반대시위(7.21)를 앞두고 홍콩 천안 지역의 한 공장에서 고성능 폭발물 TATP 2kg을 제조한 혐의로 27세 남성 검거
 - * TATP 2kg, 강산, 칼, 쇠뿔, 화염병 10개, 송환법 반대 팻말 등 발견
- 뉴질랜드, ‘총기등록·면허시스템 강화’ 2차 총기법 개정 추진
 - 7.22 정부는 '19.4월 반자동 소총 전면금지 등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에 이어서 모든 총기류 등록제 도입 및 개인 총기면허의 엄격 제한(갱신주기 10년→5년 단축) 등을 포함한 2차 총기법 개정안 발표
- ISIS 연계 외국인, 민다나오 일대 무장단체에 테러교육
 - 7.24 軍 당국은 남부 민다나오섬 인근지역에 잠입한 최소 7명의 ISIS 연계 외국인들이 현지 무장단체 ‘아부사야프’, ‘방사모로이슬람자유 전사단’ 조직원들에게 자폭테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

노르웨이, 오슬로·우퇴위아섬 테러 사건

- '11.7.22.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와 우퇴위아섬에서 노르웨이인 「브레이빅」(40세)의 차량폭탄 및 총기난사 연쇄테러로 77명이 사망하고 319명 부상
- 범인은 15:30경 오슬로 정부청사에서 차량적재 사제폭탄을 폭발시켜 다수의 사상자(사망 8명, 부상 209명)를 발생케 한 후
 - 약 2시간후 오슬로 북서쪽 30km에 위치한 우퇴위아섬으로 이동하여 집권여당인 노동당에서 개최한 청년캠프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, 69명이 사망하고 110명이 부상당하는 등 최악의 테러를 자행
 - * 「브레이빅」은 경찰복장으로 섬에 들어가 행사 참석자들을 불러 모은 후 총기를 난사하였으며, 약 1시간30분 후 출동한 특수부대에 투항
- 당국의 조사결과, 범인은 무슬림 이민과 다문화주의 정책을 펴는 노르웨이 총리와 노동당에 불만을 갖은 극우주의자로 파악되었으며, 同 사건은 역사상 최악의 ‘극우주의 백색테러’로 기록
 - * 同 테러는 또한 '16.7월 발생한 佛 니스 트럭돌진테러(86명 사망, 434명 부상) 발생 전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단독테러로 기록

테러 상식

< 백색테러(White terror) >

- (정의) 정치적 목적을 위한 극우주의자의 테러를 말하며, 좌익에 의한 적색테러(Red Terror) 또는 무슬림 극단주의들의 지하드(Jihadism, 이슬람 성전주의)와 구별
- (기원) 프랑스 혁명중인 1795년 혁명파에 대한 왕당파의 보복이 백색테러의 기원
- (특징) 백색테러 대부분은 ‘외로운 늑대’ 형태의 자생적 테러로, 주로 총기를 사용하여 주로 이슬람사원과 非기독교도를 대상으로 공격하며, 최근에는 극우단체 결성을 통한 조직적 테러 기도가 잇달아 적발
- (주요 백색테러 사건) △'11.7월 노르웨이 오슬로·우퇴위아섬 테러(77명 사망), △'17.1월 캐나다 퀘벡 이슬람사원 총기테러(6명 사망), △'19.3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사원 총기테러(50명 사망) 등